



2010 남아공 월드컵

허정무-마라도나 24년만의 리턴매치

“24년 전의 패배를 결코 잊지 않았다” 허정무(55)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디에고 마라도나(50)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과 선수로 맞붙었던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24년 만에 사령탑으로 다시 격돌한다.



지난 1986년 6월 2일 멕시코월드컵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축구신동 디에고 마라도나를 태클로 저지하는 허정무. /연합뉴스

흥미로운 건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허정무 감독의 마라도나 감독과 악연이다. 허정무 감독은 한국이 1954년 스위스 대회 이후 무려 32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마라도나를 날선 선수로 처음 만났지만 아쉬운 기억으로 남았다.

1차전 상대인 아르헨티나의 벽은 높았고 ‘축구 영웅’ 마라도나가 전력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허정무 감독은 ‘진돗개’라는 별명답게 끈질기고 거친 수비로 마라도나를 막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한국은 0-3으로 크게 뒤졌다. 후반 28분 박창선이 상대 페널티지역 외곽에서 25m짜리 중거리 슈팅을 성공시켜 한 골을 만회했지만 결국 1-3으로 졌다.

한국은 월드컵 1호골에 위안을 삼아야 했고 1부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허정무 감독은 당시 개인기를 앞세워 돌진하던 마라도나 감독을 수비하다가 불을 거뒀다는 게 마라도나의 왼쪽 허벅지를 찼다. 마라도나는 왼쪽 다리를 잡고 뒹굴었고, 허정무 감독은 달려오는 심판과 상대 선수들을 향해 손으로 동그랗게 모으며 미안한 표정으로 ‘불을 차려 했다’라는 표정을 지었다. 이 때문에 허 감독의 태클은 ‘태클 축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마라도나 감독도 이를 의식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허정무 감독을 잘 기억하고 있다. 1986년 한국 선수들은 우리를 상대로 축구라기보다 태권도를 했다”며 비꼬았고 허정무 감독은 이에 대해 “아직도 어린 티를 못 벗은 것 같다. 24년이 지난 이야기이다. 엄연히 경기에 주심이 있고 심판이 경기 운영을 하고 우리로서 최선을 다한 경기였다”며 일축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24년이 지났고 허정무 감독은 한국의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위업을 이룬 뒤 남아공 월드컵 1차전에서 그리스를 꺾는 이변을 지휘했다. 선수에서 이변에는 감독으로 운명의 맞대결을 펼치는 둘의 희비가 어떻게 교차할지 주목된다.

취문고 임찬규 10K 쾌투 16강 견인

장충고·성남고도 막강 타력 앞세워 서전 장식



‘우승후보’ 취문고가 동산고를 영봉승으로 제압하며 무등기 개막전 승리를 장식했다. 장충고와 성남고는 각각 전주고와 부산공고를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취문고 5-0 동산고 취문고가 1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 17회 무등기 전국고교 야구대회 동산고와의 개막전에서 1회 4점을 뽑은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5-0으로 완승을 거뒀다. 1회가 경기의 승부처가 됐다.

동산고 선발 박병우가 첫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냈지만 2번 조용화가 유격수 실책으로 걸어났다. 박민우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내준 박병우는 폭투까지 기록하는 등 페이스가 흔들리며 1회에 4점을 내줬다. 취문고 선발 임찬규는 2회 선두타자 박병우를 2루타로 출루시켰지만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요리하는 등 5회까지 공격적인 피칭으로 탈삼진 10개를 뽑아냈다.

1회 불안한 출발을 했던 동산고 선발 박병우도 이후 추가실책 없이 7회까지 마운드를 지켰지만 취문고의 철벽 마운드에 막힌 동산고는 0-5로 무릎을 꿇었다.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둔 대동령배 우승팀 취문고는 16일 오전 10시 황금사자기 우승팀 광주일고와 8강 진출을 다툰다.

◇전주고 6-10 장충고 ‘강호’ 장충고는 전주고에 10-6으로 승리를 거뒀다. 전주고의 4번 타자 강태욱은 대회 첫 홈런을 기록했다.

양팀의 선발이 1이닝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양팀은 1회부터 4점씩 주고받았다. 전주고가 1회초 김광연의 3루타를 포함 연속 3안타와 상대편의 실책을 묶어 2점을 뽑아낸 뒤 강태욱의 투런포를 더해 4-0까지 앞서나갔다. 하지만 1회말 장충고가 사사구 5개를 날발한 상대 마운드의 제구력 난조를 틈타 끝바로 4점을 뽑아내며 균형을 맞췄다.

3회 1사 2루에서 윤경원의 3루타로 5-4로 승부를 뒤집은 장충고는 4회 상대 실책과 안타 3개를 묶어 3점을 더하는 등 뒷심을 발휘하며 10-6으로 승리했다.

장충고는 16일 낮 12시30분 부경고와 16강전을 치른다.

◇부산공고 0-10 성남고 성남고는 나흘로 4타점을 올린 정범수의 활약을 앞세워 부산공고를 10-0, 5회 콜드게임으로 누르고 16강에 진출했다.

2회말 권용우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린 성남고가 3회 서예일의 중전안타를 시작으로 대공세에 들어갔다. 첫 타석에서 2루타를 기록한 정범수가 두 번째 2루타로 1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어진 1사 3루에서 상대의 폭투로 점수를 더한 성남고는 상대 실책과 3개의 2루타를 묶어 3회에 6점을 뽑아냈다. 성남고는 8-0으로 앞선 5회 1사 1루에서 김선균의 3루타로 1점을 보았다. 5회 콜드게임까지 남은 점수는 1점. 대회 2호 홈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세이프 맞췄? 14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7회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전주고와 장충고의 경기. 4회말 장충고 공격 때 1사 주자 1-3루 상황에서 타자 정도원의 희생플라이로 3루 주자 이지혁이 홈으로 쇄도, 세이프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인공 정범수가 3루수 옆을 빠지는 안타를 때려내며 10-0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성남고 선발 황영덕은 5회까지 사사구 없이 단 하나의 안타만 허용하는 완벽한 투구로 승리투수가 됐다. 대회 첫 콜드승을 거둔 성남고는 16일 오후 3시 진흥고와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강필성기자 wool@kwangju.co.kr

‘헤딩머신’ 클로제 11호골...최다골 도전

아시아에서 시작했던 독일 간판 골잡이 미로슬라프 클로제(32·바이에른 뮌헨 사진)의 골폭풍이 유럽을 돌아 마침내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까지 도달했다.

월드컵 축구대회 통산 최다득점에 도전하는 클로제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첫 경기에서 장기간 헤딩슛으로 포문을 열었다.

클로제는 14일(이하 한국시각) 터번 모지스 마비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D조 예선 1차전 호주와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26분 문전 중앙에서 필립 랍(바이에른 뮌헨)의 크로스를 그대로 솟구쳐 헤딩, 호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미사일처럼 날아오는 클로제의 헤딩슛을 호주 골키퍼 마크 슈워처(풀럼)는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멍하게 당했다.

월드컵에서만 벌써 11골째. 2002 한·일월드컵에서 5골, 2006 독일월드컵에서 5골을 터뜨린 클로제는 세 대회 연속 골을 터뜨렸고 호나우두(15골)가 보유 중인 월드컵 통산 최다골에 4골차로 다가갔다.

클로제는 키가 182cm로 아주 크다고 볼 수 없지만 놀라운 점프력과 절묘한 타이밍을 활용, 무서운 헤딩슛으로 고공 폭격을 가하는 게 주특기다. /연합뉴스

대회 1호 홈런 기록한 ‘호타준족’

전주고 강태욱

“대회 첫 홈런을 기록해 기쁘지만 팀의 패배가 아쉽습니다.”

전주고의 외야수 강태욱(18·우투우타)이 장충고와의 경기에서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대회 1호 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강태욱은 2-0으로 앞선 1회초 무사 3루에서 장충고 투수 정다현의 직구를 잡아당겨 홈런을 기록했다.

전국대회에서 마수결이 홈런을 날린 강태욱은 “지난해 성적



이 좋지 않아 1년 야구를 쉬었는데 두 번째 전국대회 경기에서 홈런이 나왔다”며 “직구를 노리고 타석에서 집중할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장을 맡고 있는 강태욱은 “선수층이 얇지만 후회 없이 경기를 하자고 독려하면서 대회를 준비했다.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모두 최선을 다해 경기를 했다”며 패배의 아쉬움을 달랬다.

홈런포 등 4안타 4타점 ‘불방망이’

성남고 정범수

“전국대회 첫 홈런이라 더욱 뜻깊습니다.”

성남고의 유격수 정범수(18·우투우타)가 부산공고를 상대로 솔로홈런을 포함해 4타수4안타 4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며 팀의 10-0 콜드 게임을 이끌었다. 3번 타자 겸 유격수로 출전한 정범수는 1회말 첫 타석에서 2루타를 기록한 데 이어 2회 무사 1루의 상황에서 좌익선상을 깨뜨리는 2루타를 터트리며 타점을 올렸다. 선두타



자로 나온 4회에는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쏘아올렸다. 콜드게임승을 결정짓는 마지막 안타도 정범수가 기록했다. 정범수는 9-0으로 앞선 5회말 1사 3루에서 4번째 안타를 때려내며 팀의 10번째 점수를 채웠다.

불방망이를 선보인 정범수는 “점수 차가 있어서 직구 승부가 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국대회 첫 홈런이 됐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ukrakjeon Namgol-dang' (Cupcake Party) featuring various cupcake flavors and contact information: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ELISIA) featuring high-quality menu, healthy taste, and service (500K won per person). Contact: 062)671-1199.